

〈오리관측〉9~11월 오리 산지가격 약세전망

참고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

◎오리관측 9~11월 주요 내용 요약

오리 산지가격은 5,800~6,300원/3kg으로 약 보합세 전망

- 1) 9월 오리사육 마리수 6월보다 7.1% 감소 전망
 - 종오리 수입 및 입식 마리수 증가로 6월 오리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77.6% 증가한 1,522만 마리, 9월 오리사육마리수는 6월보다 7.1% 감소 전망
 - 6월 종오리는 3월대비 27.4% 증가한 169만 마리, 육용오리는 86.8% 증가한 1,354만 마리
- 2) 도압 마리수 증가로 9~11월 오리고기 총 공급량 11.0% 증가 전망

-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라 9~11월 도압마리수는 전년보다 11.3% 증가한 2,185만 마리 전망
- 오리고기 수입은 2011년 9월 이후에도 감소세 지속 예상
-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압마리수 증가로 9~11월 오리고기 총공급량은 전년보다 11.0% 증가 전망
- 3) 9~11월 오리 산지가격 약세 전망
 -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6월이후 오리 산지가격은 하락세 지속
 - 2011년 9~11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4.3~10.8% 하락한 생체 3kg당 5,800~6,300원(6~8월 대비 14.7~19.3% 하락) 전망

9~11월 오리고기 총공급량 전망

단위 : 톤

구분	국내생산(C)	수입(D)	공급계(C+D)
2010년(A)	32,374	652	33,025
2011년(B)	36,35	631	36,666
증감률(B/A)	11.3	-3.2	11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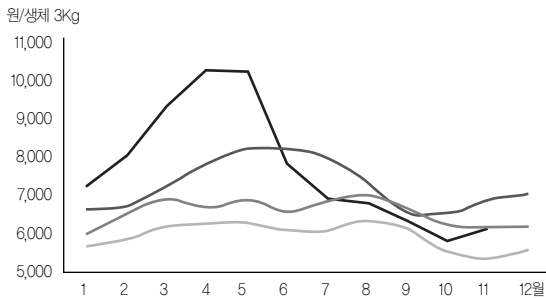
○오리 가격동향 및 전망

오리 산지가격 하락세 지속, 9~11월 산지가격 5,800~6,300 전망

오리 산지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 오리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6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것. 8월 23일 기준 오리 산지가격은 생체 3kg당 6,800원으로 전년보다 7.5%하락하였다. 2011년 9~11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(6,639원)보다 4.3~10.8% 하락한 5,800원~6,300원/생체3kg(6~8월 대비 14.7~19.3% 하락)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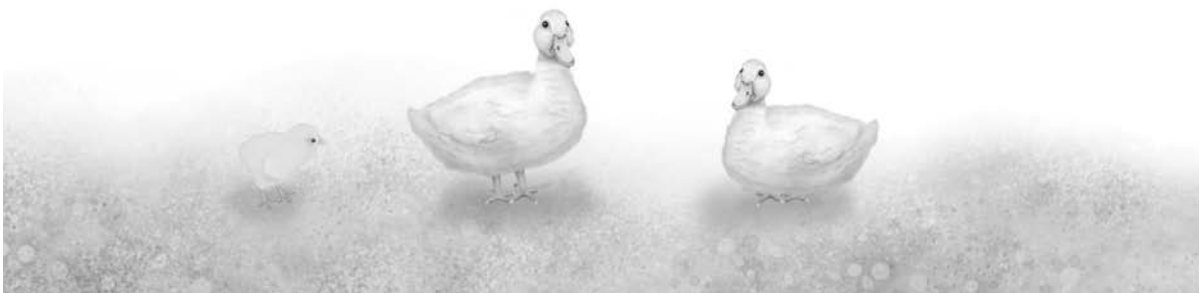
오리고기 공급과잉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다. 계열업체에서 사육물량을 10% 감축할 경우 산지가격은 6,000~6,500원으로 전망된다.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나친 병아리입식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.

오리 산지가격 추세 및 전망



9~11월 오리 산지 가격 상승 및 하락 요인

구분	공급측면	수요측면
상승	사료가격 및 생산원가 상승	
하락	국내공급 증가, 병아리 가격 하락	추석 제수용 육류소비에 따른 수요 감소



◎오리 사육동향 및 전망

6월 오리 사육 마리수 3월보다 77.6% 증가
7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보다 8.3%증가
육용오리 생산성 전년대비 향상, 9~11월 병아리
생산 잠재력 높은 수준

2011년 6월 오리 사육 마리수는 3월 대비 77.6% 급증한 1,522만 마리였다. 이중 종오리는 168만 9천마리(3월 대비 27.4% 증가), 육용 오리는 1,354만 마리(86.8% 증가)였다. 5~7월 종오리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53.8% 증가한 24만 6천 마리였으며, 9월 오리 사육마리수는 6월보다 7.1% 감소할 전망이다. 2011년 7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6만 7천 톤(전년대비 8.3% 증가)이었다. 이중 육용오리용은 6만 3천 톤(8.5% 증가), 산란오리용은 4천 9백 톤(5.2% 증가)이었다. 5월 및 6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각각 전년대비 27.0%, 24.5% 증가 하였으나, 7월 증가폭이 한자리 수에 그친 것은 최근 사료가격 인상과 오리 시세 하락에 따른 사육물량 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. 또한 육용오리 8월 출하일령은 43일로 전년(44.6일)보다 앞당겨졌으며, 출하체중은 전년대비 8.2%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7~9월 잦은 강수로 전년보다 더위피해가 덜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. 2011년 5~7월 종오리 입식마리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7.7% 증가한 29만 8천마리였다. 종오리 입식마리수 증가에 따라 2011년 9~1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대비 10.4~17.9% 상승하였다.

◎오리고기 수급 및 전망

9~11월 도압마리수 전년보다 11.3%증가 전망
오리고기 수입 전년대비 감소 전망
9~11월 공급량 전년보다 11.0% 증가 전망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도압 마리수가 2011년 2월 420만 마리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. 사육마리수 증가로 5~7월 도압마리 수는 전년대비 17.6% 증가한 2,466만 마리였다. 종오리 사육마리수 증가로 9~11월 도압마리수는 2,185만 마리로 전년대비 11.3% 증가(6~8월 대비 13.9% 하락)할 전망이다. 2011년 4월 이후 오리고기 수입량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, 7월 수입량은 전년대비 19.0% 감소한 280 톤이었다. 산지가격 약세상황이 지속되면서 9월 이후 오리고기 수입량도 전년 대비 감소로 추정된다.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압 마리수 증가로 9~11월 오리고기 총공급량은 전년보다 11.0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